

【논 문】

만력 전반기 명의 정세와 임진전쟁 참전과정

김 경 록*

차례

- I. 머리말
- II. 만력 전반기 명의 정세와 군사상황
- III. 명의 군사인식 변화와 조명관계
- IV. 명의 임진전쟁 참전결정과 지연
- V. 맺음말

국문초록

임진전쟁은 16세기 최대 국제전쟁으로 조선, 명, 일본의 역사전환을 가져왔다. 중요 역사사건으로 임진전쟁의 분석은 당시 국제정세와 조선과 명의 군사상황 및 외교관계를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명은 만력 전반기 장거정의 개혁정치와 만력제의 정치방기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대외적으로 몽골·여진과 군사충돌했다. 군사제도의 부패현상과 군사지휘관의 무능으로 군사역량은 열악했다.

만력 전반기 명은 요동에서 여진의 회유와 군사충돌 방지에 전념했다. 요동에서 세력을 확장한 이성량은 명군의 본질적인 개혁과 재정비는 논외로 하고, 자신의 권력 강화 및 치부에 전념했다. 이성량이 탄핵당하여 현직에서 물러난 시점에 명은 만력삼대역의 하나인 영하의 변이 발생했다. 임진전쟁 발발 직전에 영하의 변으로 명은 가용병력을 그 진압에 투입하여 임진전쟁에 참전이 지연되었다.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만력제는 임진전쟁의 침략국 일본에 대한 정도를 천명했다. 그러나 가용한 병력의 제한으로 만력제의 참전결정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참전이 힘들었다. 요동병력의 선발대가 평양성전투에서 패

*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배하자 만력제의 권위에 손상을 받았다. 이에 송응창을 경략으로 임명하고, 병력조달 및 지휘부를 구성하며 군량과 군기의 조달에 주력하여 영하 반란의 진압병력을 주축으로 한 정토군을 1592년 12월말 참전했다. 명군 참전은 병력조달, 군기마련, 군량조달과 운송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했다.

주제어: 만력연간, 요동정세, 장거정, 임진전쟁, 조명관계, 참전

I. 머리말

1592년(선조 25, 만력 20) 5월 10일, 일본군의 조선침입 소식을 병부를 통해 인지한 만력제는 우선적으로 연해 각 성의 독무와 총병관 등에게 방비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¹⁾ 약 1개월 뒤 만력제는 요동순무 및 요동도사에서 精兵 2부대를 조발하여 조선을 구원하도록 하고, 은 2만냥을 보내 군사들을 위무하도록 했다.²⁾ 즉, 임진전쟁에 참전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4월 13일 발발한 임진전쟁을 5월 10일, 인지한 만력제는 6월 2일에 참전을 결정하고, 선발대로 요동병력의 조발을 지시하였다. 만력제의 참전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작 명군 본진이 압록강을 넘어 전쟁에 참전한 시점은 遊擊 錢世禎이 군사 1천 명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도강한 이후이다.³⁾ 물론 본진 전체가 조선에 들어온 시점은 12월 말이다. 유정이 거느린 부대는 1593년 4월에 압록강을 도강했다.⁴⁾

만력제의 참전결정에도 불구하고, 명군은 실제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조선에 들어와 전투에 투입되었다. 황제 중심의 일원적인 통치체제의 명에 있어 황명에도 불구하고 반년이나 지나 명군이 참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조선은 기습적인

1) 『명신종실록』 권248, 만력 20년 5월 10일(기사).

2) 『명신종실록』 권249, 만력 20년 6월 2일(경인).

3) 『선조실록』 권33, 선조 25년 12월 10일(병신).

4) 『선조실록』 권37, 선조 26년 4월 2일(병술).

일본군의 침입에 조선군은 연전연패하여 왕도 한성이 함락되고 국왕 선조가 파천하여 의주까지 피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군의 참전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가? 과연 황제가 참전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부상서 석성이 임의대로 참전을 지연하였다는 것인가? 이는 명의 통치체제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정치행위이다.

16~17세기 동북아시아 국제정세는 격변의 시대로 국제전쟁 임진전쟁이 발발하여 한중일이 전쟁 당사국으로 국운을 달리하였으며, 이후 명칭고체로 청 중심 국제질서가 성립된 시기였다. 특히, 임진전쟁은 16세기말 국제사회를 전쟁으로 몰아넣었던 국제전쟁이었다. 중요한 역사전환의 전쟁이란 점에서 학계에서 방대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전쟁의 전반적인 면모를 가능하게 한다.⁵⁾

중국학계는 임진전쟁을 중화주의 관점에서 조선을 구원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전쟁을 분석했다. 또한, 군사, 정치, 인구, 경제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명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중국학계는 명군의 출병을 중심으로 전쟁사차원에서 접근하거나 일본의 전쟁 발발원인 및 종전협상을 관심있게 다루었다.⁶⁾ 참전보다 출병이란 관점으로 명군을 바라본 중국학계의 시각이 조선에 대한 구원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 반면, 일본학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쟁인식 및 전후 역사변화에 집중하는 연구경향을 보였다.⁷⁾

-
- 5) 김경록, 2016, 「임진왜란 연구의 회고와 제안」, 『군사』 100.
- 6) 李景溫, 1980, 『朝鮮壬辰衛國戰爭』, 商務印書館; 張萬鈞, 1981.6, 「明朝兩次出兵援朝抗日」, 『學術論壇』; 楊昭全, 1981, 「論明代援朝禦倭戰爭中的和議問題」, 『朝鮮研究文集』1; 司今, 1982.4, 「中朝抗倭戰爭中的露梁海戰」, 『安徽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台灣三軍大學編, 1983, 『中國歷代戰爭史』, 『軍事譯文出版社』; 彭秀彬, 1984.2, 「明代土家兵抗倭事迹概述」, 『求索』.
- 7) 池內宏, 1914, 『文祿慶長の役』正編 第一, 南滿洲鐵道(1987年 吉川弘文館 復刊); 辻善之助, 1917, 「豊臣政權の支那朝鮮征伐の原因」, 『海外交通史話』 190, 東亞堂書房; 鈴木良一, 1952, 「秀吉の朝鮮征伐」, 『歴史學研究』 155; 岩澤厚彦, 1962, 「秀吉の唐入りに關する文書」, 『日本歴史』 163; 田中健夫, 1966, 「朝鮮の役の分析視覚について」, 『九州史學』 33・34; 北島万次, 1990, 『豊臣政權の對外認識と朝鮮侵略役』, 校倉書房; 中村實, 1992, 「수길 정권과 임진왜란의 특질」, 『아시아문화』 8; 村井章介, 1997, 「임진왜란의 역사적 전제: 일조관계사를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7; 岸本美緒, 1998, 『東アジアの「近世」』, 山川出版社; 米谷均, 2004, 「〈全浙兵制考〉 近報倭警에서 본 日本情報」, 『한일관계사연구』 20; 津野倫明, 2009, 「壬辰倭亂の原因・目的に關する日本の諸學說」, 『일본학』 28; 石田徹, 2012, 「메이지(明治) 시대에 있어서 임진왜란」, 『경남문화연구』 33.

한국학계는 가장 많은 연구성과를 도출하여 정치, 군사, 사회, 문화, 인물 등 방대한 성과를 진척했다.⁸⁾ 임진전쟁에 관한 연구 이외에 명말의 화북사회와 임진전쟁을 제외하면 만력연간 전체를 통괄하거나 후금과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 만력기 장거정의 개혁에 관한 연구, 호광광세태감을 징세와 이에 따른 민변과 재정(연납)을 정리한 연구, 개괄적으로 요동정국을 정리한 연구 등 연구성과가 있지만,⁹⁾ 구체적인 조선, 명, 일본의 전쟁인식 및 전쟁지도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¹⁰⁾

무엇보다 국제전쟁을 직면하여 명과 조선이 명분적인 사대관계 및 조선의 정치·지리적 위치 등 이유로 참전을 결정하고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였는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기존 학계에서 임진전쟁 이전 조선과 여진관계에 관한 세밀한 연구가 있지만,¹¹⁾ 전쟁이 발발한 1592년 4월을 한참 경과하여 12월 말에 실질적인 참전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만력제의 참전결정이 내려졌음에도 8개월 지나 실행되는 과정에 명은 어떠한 군사상황과 정세에 있었는가? 만력 즉위부터 전쟁 이전까지 명의 정세 및 조선에 대한 인식과 군사정책은 어떠했는가? 명의 군사동원체제 및 군사정책이 전쟁이전 어떻게 작용했는가? 전쟁기 인접지역 요동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최근 국제전쟁으로 임진전쟁을 바라보며 조명군사관계를 정치, 경제,

8) 김경록, 2016, 「임진왜란 연구의 회고와 제안」, 『군사』 100.

9) 정병철, 1994, 「명말 산동과 요동간의 교류와 그 성격」, 『명청사연구』 3; 정병철, 1999, 「명말의 화북사회와 조선의 왜란」, 『명청사연구』 10; 황지영, 2002, 「이성량사건을 통해서 본 17세기 초 요동정세의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21; 이화승, 2011, 「만력초기 개혁의 배경과 평가—장거정(張居正)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36; 윤상환, 2014, 「명 만력연간 호광광세태감 진봉과 민변」, 『동국사학』 56, 2014; 남의현, 「16~17세기 두만강(豆滿江) 변경시대」, 『명청사연구』 41; 2015, 「명말 요동정국과 조선」, 『동양사학연구』 132; 서인범, 2016, 「명 만력연간의 재정 위기와 捐納 시행」, 『역사학보』 230.

10) 김경록, 2022, 「임진전쟁기 명의 참전과 전쟁전략」, 『지역과 역사』 50.

11) 서병국, 1970, 『宣祖時代 女眞交涉史 研究』, 교문사; 송우혜, 2005, 「조선 선조조의 니탕개란 연구」, 『역사비평』 72; 윤호량, 2009, 「宣祖 16년(1583) 尼瀋介의 亂과 조선의 군사전략」,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민덕기, 2010, 「임진왜란 직전 조선의 국방 인식과 대응에 대한 재검토—동북방 여진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57; 장정수, 2013, 「선조대 對女眞 방어전략의 변화 과정과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67; 박정민, 2014, 「누르하치의 두만강 유역 진출과 조선의 藩胡 상실」, 『인문과학연구』 43,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군사측면에서 분석하는 연구결과도 있다.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진전쟁 이전 조명관계 및 명의 정세를 세밀하게 연결시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명 만력 전반기를 대상으로 임진전쟁 발발 이전 명의 정세와 군사상황을 정리한다. 이어 명의 군사인식 변화 및 조명관계를 살펴 임진전쟁 참전과정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리를 통해 명의 임진전쟁 참전과정 및 전략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정리하고자 한다.

II. 만력 전반기 명의 정세와 군사상황

만력연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만력연간을 총평한 것으로 가장 오랜 재위기간동안 해이한 기강, 군신간 불통, 권력과 이익을 추구한 관리, 선비들마저 파벌로 대립하였던 시기로 평가했다.¹³⁾ 만력연간에 이러한 평가는 정치적인 총평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와 함께 군사상황을 함께 살펴본다.

먼저 조선이 인식한 명 정세는 어떠한가? 1573년(선조 6) 조선이 파악한 명의 정세는 나이 어린 만력제는 학문에 열중하고, 慈殿太后가 섭정하여 정국을 주도하는데, 公事出納은 司禮監에서 맡아보기 때문에 태감 馮保가 閣老에게 보내 가부를 상의한다는 내용이였다.¹⁴⁾ 즉, 장거정, 풍보로 이어지는 만력초기 정국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王守仁이 문묘에 배향되는 정황도 파악하고 있었다.

한편, 만력 전반기 정세는 가정연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대외적인 상황을 살펴본다. 가정연간 명은 북로남왜에 시달리며, 가정제의 방만한 통치로 국가통치력에 많은 손상을 입었다. 용경제의 즉위는 가정연간의 폐정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정치적 갈등은 여전하였지만, 무엇보다 북로의 핵심적인

12) 김경록, 2022, 『조선중기 한중군사관계사』, 군사편찬연구소.

13) 『명사』 권24, 본기21, 光宗.

14) 『선조실록』 권7, 선조 6년 1월 17일(무술).

위협요소였던 俺答(Altan Khan, 阿勒坦汗)의 위협을 제거한 점은 정치, 군사적으로 큰 성과라 할 것이다.

고공은 가정중기 이후 군사개혁과 변방방어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몽골의 小王子 사후 알탄 칸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명과 몽골관계는 긴장관계로 전환되었다. 몽골의 달단세력을 5부족체제로 전환하고, 宣府와 大同을 비롯한 명의 서북 지역을 침입했다. 몽골은 군사침입을 통해 互市, 馬市, 貢市를 요구했지만, 명은 이에 호응하지 않았다. 알탄 칸은 1542년(가정 21), 朔州, 雁門館, 太原 이남 등지를 유린하고, 1550년(가정 29)에 대동, 태원 등지를 침입했다.¹⁵⁾ 알탄 칸이 薊州鎮까지 진출하여 9월에 북경성 포위를 풀고 회군한 '庚戌의 변'으로 명은 대몽골 군사정책에 큰 경각심을 가졌다.¹⁶⁾

경술의 변 이후 가정제는 몽골에 대한 공세적 군사정책을 채택했다. 이후 가정 후반기 명과 몽골의 군사충돌은 지속되었으며, 명은 막대한 군사비를 소요했다.¹⁷⁾ 이 시기 동남 해안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왜구가 출몰하여 내지까지 약탈했다. 이에 1569년(용경 3) 高拱이 수보를 맡았다.¹⁸⁾ 고공은 용경연간 및 만력연간 군사상황에 큰 영향을 미쳤던 군사정책의 시행을 가져왔다. 철저한 능력주의자였던 고공은 알탄 칸을 순의왕으로 책봉하고 공식적인 교역을 허가함으로써 오랜 기간 몽골의 침입으로 인한 군비소요를 진정시켰다. 고공은 알탄 칸을 순의왕으로 책봉하고, 조공무역이란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허락하는 방식의 封貢정책을 채택했다.¹⁹⁾

용경연간에 이러한 對알탄 칸 봉공정책이 성공하자 명은 군사상황이 개선된 점에 고무되어 요동 및 임진전쟁기 일본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의 군사정책을 시행하고자 했다. 임진전쟁기 명의 강화협상 및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봉공

15) 『명세종실록』 권260, 가정 21년 4월 25일(을해); 권262, 윤5월 19일(무진).

16) 『명세종실록』 권363, 가정 29년 7월 17일(무신); 권364, 8월 1일(임술); 16일(정축); 23일(갑신); 권367, 11월 1일(경인).

17) 唐玉萍, 1996, 「俺答汗在明代蒙漢關係中的作用」, 『社會科學輯刊』 107, 107-111쪽.

18) 『명목종실록』 권40, 용경 3년 12월 22일(경신).

19) 岳天雷, 2009, 「高拱主持“俺答封貢”論析」, 『第十三屆明史國際學術研討會』, 571-581쪽.

정책의 전개는 알탄 칸의 봉공정책 성공이 가져온 군사정책과 연관된 외교정책이라 할 것이다.

한편, 대내적으로 만력초기 정국을 주도하였던 首輔 장거정은 근무평정으로 考成法을 실시하여 관리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전국적인 농지의 실지 측량을 통해 재정을 개선하고자 했다. 장거정의 재정개선 정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만력 10년간 재정개선은 만력제의 친정이후 재정위기로 이어졌다. 명 중기이후 누적된 만력연간의 재정위기는 황제 중심의 통치체제에서 대내외적 위기상황과 함께 무엇보다 만력제의 親政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된 황실관련 비용의 증가가 있다. 宮殿 조영 등과 같은 공사비용, 婚禮·冊立 등 典禮 비용 등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점은 재정위기의 핵심내용이었다.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광세징수, 연납 등의 다양한 방법을 시행했다.²⁰⁾

황제권한의 중요성으로 언제나 황위계승은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이런 점에서 西周의 宗法制가 정립된 이후 적장자상속 및 정치세력간의 갈등으로 황위계승은 원칙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국가의 중대사로 등장했다. 명 만력연간 황태자책봉을 둘러싼 儲嗣문제로 만력제는 신하들과 갈등하며 怠政을 시행했다. 1582년(만력 10) 孝靖皇太后 王氏와 사이에 첫째 朱常洛이 태어나고, 1586년(만력 14) 恭恪惠榮和靖皇貴妃 鄭氏와 사이에 셋째 朱常洵이 태어났다. 황귀비 정씨를 총애한 만력제가 주상순을 황태자로 삼고자 하면서 내각의 심각한 반대에 직면했다. 宗法을 강조하는 내각에 대응하여 만력제는 1589년부터 일체의 정무를 배제하는 태도를 보였다.²¹⁾

약 15년간 지속된 저사문제는 친정이후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던 만력제를 정치에 무관심하게 하고, 무엇보다 정사에 나타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²²⁾ 만력

20) 서인범, 2016, 「明 萬曆年間の 재정 위기와 捐納 시행」, 『역사학보』 230, 157-204쪽.

21) 『명신종실록』 권587. 만력 47년 10월 2일(신해). 貴州道御史 蕭毅중이 만력제에 대해 30년간 不郊·不廟·不朝한 황제가 전례에 없었다는 언급에서 확인된다. 물론 만력제가 정치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내각 및 대신들과 마주치는 조회와 의례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 황실공사 및 자신에게 필요한 정치행위는 필요한 만큼 펼쳤다.

22) 賈艷敏, 1992.4, 「明萬曆年間立儲事與萬曆朝政」, 『黃淮學刊』(社會科學版), 53-57쪽.

제의 정치적 무관심 및 汰政은 많은 신료들이 문제 제기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갈등만 고조시켰다. 대학사 王家屏이 災異를 이유로 스스로 탄핵하는 상소를 제출하며 개혁을 주장했지만 만력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²³⁾ 자연스럽게 서사문제가 지속된 기간동안 정치, 군사정책에 있어 만력제와 신하들, 정치적 입장에 따른 정치대립이 연계되어 요동정세 및 조명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만력초기는 장거정의 개혁정치시대였다. 장거정은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긴축재정을 펼쳤으며, 각종 관례적으로 시행되었던 폐단을 철폐하고, 몽골과 왜구로 인해 와해되기 일보 직전이었던 군사제도를 개혁하고 군기를 정립하고자 했다. 무엇보다 장거정시대의 이러한 개혁정치는 군사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요동정세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²⁴⁾

그럼, 요동정세와 관련한 사항을 살펴본다. 명대 최대의 군사위협은 몽골이었다. 서북쪽, 북쪽, 동북쪽으로 이어지는 변방에서 몽골은 명을 위협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요동의 경우는 몽골과 함께 여진의 준동에 대한 군사정책이 펼쳐졌다. 이에 명대 군사편제와 군사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명은 건국이후 위소제도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군사제도를 편제했다.

건국이후 명은 여진에 대한 무마책으로 개월에 馬市를 열어 무역을 하도록 했다.²⁵⁾ 여진은 가정연간에 哈達, 葉赫, 輝發, 烏拉의 扈倫 4부로 통합되었다. 명초 塔魯木衛에서 시작된 여허, 肥河衛와 罕河衛가 합병되어 형성된 호이파, 死者前衛에서 시작된 하다와 올라 등 호룬 4부는 홀라온 여진이다. 명은 호룬 4부 가운데 가장 강성한 하다부의 족장을 1575년(만력 3)에 龍虎將軍으로 책봉하여 여진족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다. 1589년(만력 17), 건주여진 출신 누르하치가 명으로부

23) 『명신종실록』 권223, 만력 18년 5월 3일(계묘).

24) 『만력회전』 권107, 예부, 朝貢3, 東北夷. 명의 대외인식을 잘 보여주는 조공체제에서 동북의 세력으로 海西, 建州만을 설정한 점에서 확인된다.

25) 『만력회전』 권107, 예부, 朝貢3, 東北夷. 建州衛, 建州左衛, 建州右衛, 毛憐衛 등 건주여진의 위는 매년 100여 명의 내조인원이 허락되었으며, 해서여진은 5명 정도가 내조했다. 이들 여진의 貢物은 馬, 貂鼠皮, 舍列孫皮, 海青, 兔鵝, 黃鷹, 阿膠, 殊角 등이었다. 명은 홍무연간 요동경략으로 요동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뒤, 영락연간 적극적인 招撫정책을 펼쳐 여진의 내조를 유도했다.

더 도독에 임명되면서 하다부를 대체하는 세력으로 성장했다.²⁶⁾ 조선에서 전쟁이 발발하여 명군의 참전이 이루어진 1593년(만력 21) 9월, 여진족 사이에 주도권을 둘러싼 대규모 군사충돌이 발생했다.

임진전쟁 이전 명과 요동의 정세 및 군사상황에 대한 분석에서 군정 및 군기문제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군사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점은 무엇보다 군비 및 군기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가정연간에서 용경연간까지 요동에 국가의 다스림이 효율적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시행되어 각종 민란과 병란이 발생했다. 가정연간 이런 현상이 명 전국에 걸쳐 발생했지만, 요동은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요동도사를 중심으로 軍政이 시행되는 지리적 특징으로 군대의 부패현상은 일상화될 정도였다.²⁷⁾ 이런 현상은 가정연간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만력연간까지 이어졌다.²⁸⁾

요동의 정치문란과 군사부패는 경제분야에 영향을 주었다. 군정지역에 보편적으로 장려되던 둔전제는 군사지휘관의 사적 탐욕으로 파괴되었고, 營田制는 내실이 없었으며, 농업과 상업은 피폐해졌다. 자연적으로 천재지변이 지속되어 농경지의 축소 및 황폐화로 이어져 요동주민의 생활은 악화일로에 있었다. 정치, 경제의 혼란은 요동의 기본 역할이었던 군사기능을 약화시켰다. 근본적인 문제는 변방에 필요한 군사력의 부족이다. 충원되어야 할 軍額이 부족하고 결핍되었다. 병력의 부족은 각지의 방어시설의 훼손으로 이어졌다. 牆堡墩臺 등 군사축선 및 방어선에 건설되었던 주요 방어시설이 파괴되어도 이를 수축할 수 없었다. 군비를 포함한 재정의 악화는 군사작전에 필수적이었던 군마의 조달마저 어렵게 하였다. 이런 군사준비상황이 악화된 점은 군사지휘관의 개선의지에 따라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었지만, 요동의 군사지휘관은 무능하고 오히려 더 부패하여 탐욕적인 면모를 보였다.

26) 栾凡, 2012.3, 「明后期遼東軍人群体的生存狀態研究-以粮餉爲中心」, 『東北史地』.

27) 『명세종실록』 권303, 가정 24년 9월 8일(무진).

28) 『만력회전』 권120, 병부3, 銓選3, 武職襲替. 명은 가정연간이후 만력연간에 이르기까지 무공을 허위로 보고하여 직급이 오르거나 후손이 襲替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혁파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황제별로 事例로 會典에 남겼다.

허위보고 및 무능, 부정부패 등은 이성량에 의해 보다 집약적이고 종합판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정연간이후 요동은 군정지역으로 군대의 부패현상이 만연하여 효율적인 군사체계가 자리잡기 어려웠다. 이런 부정부패의 상황 속에서 이성량은 지역 군벌로 성장했다.²⁹⁾ 즉, 이성량의 성장 및 활동 자체가 요동의 군사분야 부정부패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요동의 경제상황이 황폐화되는 과정은 군사의 부정부패와 연관된다. 요동도사가 군정을 시행하며, 자연스럽게 요동에 둔전이 경영되었다. 명대 요동의 군사적 중요성은 건국시기부터 명확하게 인식되었으며, 요동경략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다.³⁰⁾ 국가재정과 군역의 운용에 있어 군사작전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운용된 둔전제는 요동의 경제에 가장 큰 영역이었다. 요동의 둔전제는 문제점이 발생하자 營田制와 병행하여 시행되었다.

즉, 임진전쟁 이전 명과 요동의 군사분야 부정부패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또한, 요동의 군사지휘관으로 성장한 세력의 독점적인 군사권력 장악은 더욱 명과 요동의 군사력 부실화에 영향을 주었다. 요동의 정세와 군사상황을 분석할 때, 요동총병관으로 군사력을 장악하였던 李成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567년(용경 원년)에 永平전투이후 1569년(용경 3) 張擺失 격퇴, 1570년(용경 4) 辛愛 격퇴, 1571년(용경 5) 卓山전투, 1572년 遼陽전투, 1573년 前屯전투, 鐵嶺鎮전투, 1574년 王杲 격퇴, 瀋陽전투, 1576년 錦州·義州전투, 1577년 河東전투, 1578년 丁字泊전투, 長定堡전투 등을 통해 이성량은 요동 최대 군벌로 성장하여 대대로 指揮僉事를 세습받았다.³¹⁾ 이 과정에 공적조작문제 등으로 상급을 박탈당하기도 했다.³²⁾

1578년 이성량은 甯遠伯에 책봉되었다. 寬奠과 通市문제로 명군과 여진은 충

29) 『명사』 권237, 이성량전.

30) 김경록, 2017, 「홍무연간 명의 요동경략과 조명관계」, 『군사』 102.

31) 『명목종실록』 권18, 용경 2년 3월 8일(무오); 권19, 4월 26일(을사); 권50, 4년 10월 6일(경자); 권64, 5년 12월 23일(신해); 『명신종실록』 권2, 용경 6년 6월 13일(정묘); 권83, 7년 정월 22일(무진).

32) 『명신종실록』 권84, 만력 7년 2월 2일(정축). 장정보전투의 실질적인 장수는 遊擊 陶承勳였다. 이를 자신의 공적으로 만력제에게 보고한 것이었다. 이성량은 이를 은폐하고자 도승곡을 죽였다. 급사중 光懋가 이를 탄핵하자 이성량은 기존에 부여받았던 모든 상급을 박탈당했다.

돌하였으며, 1580년 여진의 靉陽, 黃岡嶺 침입을 이성량이 막아냈다. 이성량은 자신의 필요성에 따라 군사력을 운용하여 대진보전투에 구원하지 않아 참장 熊朝臣, 부장 周之望, 王應榮 등이 전사하기도 했다. 당시 요동은 방어선이 넓어 전체 병력을 분산하여 방어하는 체제였다. 문제는 여진족이 병력을 집중하여 특정 진보를 공격하면 명군의 방어력은 이를 방어할 수 없었다. 명군은 이를 해당 진보에서 최대한 방어하면 이성량의 대군이 구원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했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명 장수들이 희생되었으며, 이성량의 공적은 쌓여갔다.³³⁾³⁴⁾

1590년(만력 18) 여진의 遼州, 沈州, 해주, 蓋州 침입을 방어하지 못한 이성량은 1591년(만력 19) 여진침입에 요동군 수 천명의 전사라는 패배를 경험했다. 임진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수 년간 여진과 전투에서 이성량이 지휘하는 명군은 많은 패배를 경험했다. 그러나 이성량과 총독 蹇達은 이를 만력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순안어사 胡克儉이 전말을 만력제에게 보고하고자 하였는데, 중앙정부와 연결된 이성량의 제재로 상소가 만력제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성량은 위험을 감지하고, 병을 이유로 사직을 청했다. 11월에 어사 張鶴鳴의 건의로 이성량은 해임되었다.³⁵⁾ 이를 통해 이성량은 영원백의 봉록은 유지하며, 단지 총병관의 직책만을 내려놓았다.

한편, 1592년(만력 20) 哮拜의 寧夏반란이 일어났다. 어사 梅國楨이 이성량의 등용을 청했지만, 급사중 王德完 등의 반대로 등용되지 않았다. 뒤이어 어사 朱應轍과 급사중 任應徵, 첨사 李瑄 등이 연명하여 이성량을 탄핵했다. 만력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후원자였던 申時行, 許國, 王錫爵 등 대학사들이 퇴직하며 이성량도 물러났다. 이성량의 부장출신이었던 李平胡, 李甯, 李興, 秦得倚, 孫守廉 등이 이후 요동의 군사력을 지휘했다.³⁶⁾

명은 영하반란에 이성량을 대신하여 이여송을 참전시켰다. 요동에서 여진침입

33) 『명신종실록』 권98, 만력 8년 4월 15일(갑신); 권106, 11월 10일(병자).

34) 『명신종실록』 권122, 만력 10년 3월 18일(병자).

35) 劉謙, 1989, 『明遼東鎮長城及防禦考』, 文物出版社, 287-290쪽.

36) 張曉明, 2020.1, 「明后期遼東武官集團的形成與影响」, 『鞍山師範學院學報』.

에 대응하기에 부족한 병력이었음에도 이여송은 3만 병력을 지휘하여 서북쪽의 영하로 이동했다. 영하반란이 모두 진압된 9월에 이여송은 만력제의 임진전쟁 참전결정에 따라 총병관으로 휘하 병력을 다시 요동으로 이동시키고, 조선에 진주하게 되었다.

만력연간은 역사적인 사회전환기로 명의 통치질서가 붕괴되는 시작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요동의 정세는 명 제국 전체의 정세와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만력연간 가장 오랫동안 여진족의 통합전쟁이 진행되었음에도 명의 통제권은 상당히 축소되었다. 이를 기회로 누르하치는 통합된 여진족을 후금으로 전환하고, 명 정복전쟁을 추진하여 명청교체의 역사적 공간이 요동이기 때문이다. 당시 요동은 가정제, 융경제, 만력제에 이르기까지 30여 년간 총병관으로 정치, 군사를 장악한 이성량에 의해 통제되었다.³⁷⁾ 요동의 역사적 의미 및 정세를 살펴볼 때, 정치, 경제, 군사, 민족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명의 요동정책 및 대여진정책의 핵심은 요동도사에서 여진을 제어하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임진전쟁이 발발하기 이전 요동의 정세는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었다. 여진의 통합전쟁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명은 요동도사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영토로 인식하였던 요동으로 여진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경계했다. 이런 군사적 위기상황은 자연스럽게 요동의 실질적인 지배자였던 이성량에 의해 전권이 장악되었으며, 이성량의 허위보고 및 세력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중앙의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경향은 임진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참전한 장수 중 이성량의 아들로 요동에 기반이 있었던 이여송이 제독을 맡아 군사지휘의 군령권을 행사한 반면, 산둥에서 군무를 맡았던 경험으로 송응창이 경략으로 이여송을 견제하며 명군 전체를 통솔하였던 결과로 나온 것이다.

37) 肖瑤, 2006, 「李成梁與晚明遼東政局研究」, 東北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III. 명의 군사인식 변화와 조명관계

이상의 명 정세변화와 군사상황에서 명의 요동인식 및 대조선관계는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정리한다. 명의 대조선 및 대여진인식을 사행을 통해 살펴본다. 명은 요동에 遼東都司를 설치하여 만력연간 25개의 관할 위를 軍政했다.³⁸⁾ 만력제는 등극이후 조공한 해서여진의 도독에게 연회를 베풀어 회유하고자 했다.³⁹⁾ 여진은 명에 공마를 바치고 보다 많은 상을 받았으며, 무엇보다 해당 기미위소의 관직을 인정받았다.⁴⁰⁾ 이 시기 여진의 조공인원은 300명 규모였으며, 말을 교역하여 말값을 받았다. 무엇보다 1573년(만력 원년)에 북경에 도착하여 만력제로부터 말 교역과 상을 받은 사례가 8월 9일까지 11회였다는 점이 주목된다.⁴¹⁾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자 여진이 신속하게 각 부족별로 조공하여 말교역과 상급을 하사받았던 점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이는 만력제의 등극과 함께 명의 대여진 회유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었음과 만력연간 여진관계를 보여주고, 여진 역시 대명관계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노력이 집중되었음을 보여준다.

만력연간 여진에서 명에 보낸 사절은 단위 위별로 대체적으로 200여 명을 넘는 수준이었다.⁴²⁾ 만력 3년에는 2월 21일, 3월 11일, 24일, 12월 17일, 25일 2회 등 6회, 만력 4년 정월 19일, 25일, 2월 2일, 5일, 19일, 3월 16일, 5월 27일, 7월 26일, 8월 12일, 25일 등 10회 여진은 명에 사행했다.⁴³⁾

38) 남의현, 2008, 「명대 요동지배체제의 특징에 관한 분석」, 『강원사학』 22-23; 2010, 「明末 遼東政局과 朝鮮-명 후기 변경의 위기와 질서변화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26,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5, 「명대 위소제도의 형성과 성격-변경지역의 東寧衛를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43, 참조.

39) 『명신중실록』 권11, 만력 원년 3월 1일(신사).

40) 『명신중실록』 권12, 만력 원년 4월 8일(정사).

41) 『명신중실록』 권12, 만력 원년 4월 15일(갑자); 16일(을축). 만력 등극한 해에 여진족이 조공하여 돌아가며 상과 연회를 받은 날이 3월 1일, 4월 8일, 15일, 16일, 5월 16일, 6월 4일, 14일, 7월 3일, 10일, 9월 10일, 8월 9일 등이다.

42) 『명신중실록』 권25, 만력 2년 5월 25일(무술); 권26, 6월 12일(을묘); 권27, 7월 5일(정축).

43) 『명신중실록』 권35, 만력 3년 2월 21일(경인).

만력 전반기 여진의 대명사행 현황

연도	일자(사행부족, 부족장, 사행규모)	소계
1573년 (만력 1)	3월 1일(海西 者刺衛, 都督), 4월 8일(-), 4월 15일(300명), 4월 16일(-), 5월 16일(-), 6월 4일(-), 6월 14일(-), 7월 3일(-), 7월 10일(-), 7월 10일(-), 8월 9일(-)	11회
1574년 (만력 2)	5월 25일(海西 者刺衛, 都督 阿失卜, 211명/ 塔魯衛, 都督僉事 籠卜, 179명), 6월 12일(海西 古城衛, 都指揮同知 兀荅, 200명/ 忽蘭山衛, 都督同知 阿卜, 110명), 7월 5일(咬郎兀衛, 都指揮使 大汗/ 禿赤衛, 都指揮僉事 少里)	3회
1575년 (만력 3)	2월 21일(毛憐衛, 都督 失利卜/ 建州左衛, 都督 勝革力), 3월 11일(建州左衛, 都督 王忽疼克, 162명), 3월 24일(建州衛 都督 納荅哈/ 毛憐衛 都指揮僉事 土滿/ 建州右衛 都督 八當哈), 12월 17일(海西女直), 12월 25일(海西 古城衛, 兀堵尚/ 哈兒衛, 你龍哈/ 海西 者刺衛 阿失卜)	5회
1576년 (만력 4)	1월 19일(海西 哈兒衛 都指揮 龍哈, 282명), 1월 25일(海西 塔魯衛, 都指揮 僉事 籠卜, 150명), 2월 2일(海西 者刺衛, 都督 阿失卜, 417명), 2월 5일(海西 阿資河衛, 都指揮同知 亦把力/ 弗禿衛, 都指揮使 往吉奴), 2월 19일(海西 阿資河衛, 都指揮 亦把力), 3월 16일(遼東 海西 阿資河衛, 都指揮 亦把力), 5월 27일(建州右衛, 都督 來留住), 7월 26일(毛憐衛, 都督 付羊古), 8월 12일(建州衛, 都督 納木章), 8월 25일(遼東 毛憐衛, 都督 付羊古, 299명)	9회
1577년 (만력 5)	7월 26일(海西 古城衛, 兀堵尚/ 大陽河衛, 歪卜), 8월 8일(海西 肥河衛, 都督 同知 台失/ 哈兒衛, 都指揮僉事 你龍哈), 윤8월 13일(海西 弗禿衛, 都指揮使 往吉奴/ 哈木衛, 都指揮同知 哈兒只), 10월 4일(建州右衛, 都督 來留住/ 并隣衛, 都督 阿古), 12월 2일(建州衛, 都督 納木章)	5회
1578년 (만력 6)	2월 13일(遼東 建州左衛, 都督 松塔, 99명), 2월 26일(建州右衛, 都督 松塔, 99명)	2회
1579년 (만력 7)	2월 2일(海西 者刺衛), 2월 8일(海西 古城衛), 2월 18일(海西 淝河衛), 2월 25일(海西 哈兒衛), 3월 2일(遼東 海西 淝河衛, 都指揮 台失, 288명), 3월 11일(海西 平河衛), 3월 26일(海西 佛禿衛 都指揮使 往吉奴, 150명), 4월 4일(海西 弗禿衛, 都指揮 往吉奴, 150명), 6월 21일(建州右寺衛), 9월 9일(遼東 建州左衛, 都督 大疼克, 126명), 9월 16일(建州左衛, 都督 大疼克八汗, 238명), 9월 23일(建州右衛, 都督 八當哈), 10월 25일(女直, 都督僉事 八汗)	13회
1581년 (만력 9)	1월 16일(海西 者刺衛, 都督僉事 歪卜), 1월 26일(海西 古城衛, 都指揮同知 兀堵), 2월 22일(海西 弗思木衛, 都督僉事 並台, 189명), 3월 2일(海西 哈兒衛, 都指揮僉事 你龍哈), 3월 16일(海西 亦思察河衛, 都指揮僉事 往吉奴, 149명), 3월 26일(海西 弗提衛, 都指揮僉事 賽別禿, 150명), 6월 7일(女直 都督 來留住, 100명), 7월 8일(毛憐衛, 都督 失利卜), 8월 24일(建州衛, 都督 納木章), 9월 10일(毛憐衛, 都督 傅羊公, 100명), 11월 30일(建州衛, 都督 松塔寺, 100명)	11회
1583년 (만력 11)	7월 9일(海西 者刺衛, 歪卜), 7월 12일(海西 古城衛, 阿兒吉納), 7월 26일(海西 弗思木衛), 8월 13일(海西 脫倫兀衛 兀失)	4회

1584년 (만력 12)	1월 12일(建州衛, 都督 王忽), 5월 9일(建州右衛, 都督 來留住), 7월 24일(毛憐衛, 都督都指揮 付羊古)	3회
1588년 (만력 16)	10월 16일(建州衛, 都督 松塔, 154명), 11월 4일(建州衛, 都督指揮 阿台, 157명), 11월 18일(海西 思魯衛, 都指揮 羊孛羅, 239명), 11월 24일(海西 撒刺衛, 都指揮使 阿失卜, 178명), 12월 2일(海西 弗禿衛, 都指揮 往吉奴, 101명), 12월 11일(海西 友帖衛, 都指揮 泊撻, 183명), 12월 18일(海西 脫倫兀衛, 都指揮 几失, 145명), 12월 21일(海西 順劄衛, 都指揮 宿人害, 105명)	8회
1589년 (만력 17)	1월 26일(建州女直 兀失), 5월 13일(建州衛, 都督 少童, 82명)	2회
1590년 (만력 18)	4월 29일(建州衛 奴兒哈赤, 108명), 7월 21일(建州左衛, 都督都指揮 馬哈塔吉)	2회
1591년 (만력 19)	3월 28일(海西 友帖忽里衛, 伯撻, 296명), 윤3월 12일(海西 弗思木衛), 윤3월 19일(海西 脫倫兀衛 兀失/ 海西 安出衛, 阿都/ 海友帖衛, 伯撻), 4월 24일(海西 忽魯, 都督僉事 羊孛羅), 7월 10일(建州衛, 差阿台), 10월 6일(建州衛)	6회
1593년 (만력 21)	4월 10일(海西 忽魯衛, 都督 羊孛羅, 98명/ 海西 納刺河衛, 都指揮 卜索, 99명), 10월 4일(女直 猛骨索羅/ 羊索羅), 12월 16일(毛憐, 伏羊古, 99명)	3회
합계		87회

* 전거: 『명신종실록』

명은 여진에 대해 전통적인 기미정책을 펼쳐 부족간 상호 견제와 조공사행을 권장하였다. 이상과 같이 명은 가정연간에 축적된 국정혼란 및 군사위기를 용경연간에 일정하게 해소하였다. 그러나 만력연간 장거정의 재정확보 및 국정의 기율강화 등이 일시적으로 성과를 보였지만, 만력제의 친정이후 국정방기의 경향, 황세자 책봉의 갈등, 만력제의 무리한 재정소비 등으로 국정공백의 경향을 보였다. 이 과정에 몽골과의 충돌을 해소하였지만, 동북면의 여진과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군사위기가 초래되었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의 요동정세는 군사지휘체계의 혼란과 여진과의 군사충돌로 긴장이 고조되자 명은 적극적으로 여진을 초무하는 대여진정책을 전개했다.

반면 조명간 사행은 여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1578년(선조 11) 1월에 동지사 安宗道는 북경 황궁의 화재소식과 만력제의 朝天宮 修建을 선조에게 보고했다. 이 가운데 수보 장거정의 부친상으로 인한 정치갈등 역시 보고했다.⁴⁴⁾ 선조는 용경제의 사망과 만력제의 등극이란 민감한 정세변화에 적극적으로 사행외교

를 펼쳤다. 일반적인 節使 외에 陳慰使, 進香使, 賀登極使 등을 연속 파견하여 새로운 만력제의 시대에 대비한 사행외교를 펼쳤다. 이러한 사행은 명의 우호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다. 『명실록』에서 확인되는 용경제 사망에서 만력제 등극까지 반년동안 13건의 조선사행에 대한 기록이 남겨질 만큼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절사로 파견된 조선사행은 方物과 馬匹을 진헌했다. 뒤이어 사은사행 禮曹參判 朴民獻 등 38명이 사행했다. 1572년(용경 6) 7월 21일, 명은 翰林院 編修 韓世能, 吏科左給事中 陳三謨를 조선에 파견하여 만력제의 등극조서를 반포했다. 8월 12일, 만력제는 조선사행에게 말을 하사하고, 조선사행 33명에게 의복, 絹布, 靴鞮 등을 상으로 주었다. 뿐만 아니라 용경제의 사망에 대한 조선의 진위, 진향사행은 피로되었던 중국인을 함께 압송하여 파견되었다. 만력제는 조선의 진위, 진향에 대해 가상하게 생각함과 동시에 사로잡혔던 중국인을 구조하여 돌려보낸 것에 매우 만족했다. 이는 조선이 忠順하다고 인식하게 했던 점과 조선사행에게 상으로 은 100냥, 비단 4단, 紵絲 12표리 하사한 점에서 확인된다.⁴⁵⁾

만력 전반기 조선과 명의 사행 현황(용경6년~만력20년)

시기	사행명	정사	부사	서장관	사행원(通事)	비고
1572년 (용경 6)	5월	千秋使	金添慶			
	8월	登極賀使	朴淳	成世章		許震童 만력제 등극
	?	陳慰使	朴啓賢		洪聖民	
	9월	謝恩使	朴民獻	金繼輝		
	10월	登極詔使	編修 韓世能	都給事中 陳三謨		만력제 등극
1573년 (만력 1)	2월	奏請使	李後白	尹根壽	尹卓然	
	5월	聖節使			李承楊	
1574년(만력 2) 5월	聖節使	朴希立		許筭	質正官 趙憲	

44) 『선조실록』 권12, 선조 11년 1월 23일(을해).

45) 『명신종실록』 권2, 용경 6년 6월 13일(정묘); 23일(정축); 권3, 7월 21일(갑진); 권4, 8월 12일(을축); 20일(계유); 권6, 10월 11일(갑자).

1575년(만력 3)		謝恩使	洪聖民			
1576년(만력 4)		?	崔盖國			
		冬至使	具思孟			
1577년 (만력 5)	2월	謝恩使	尹根壽		金誠一	
		奏請使				崔筠
		冬至使	安宗道			
1578년(만력 6)			黃琳			황후책립조서
1581년(만력 9)		奏請使				崔昱
1582년(만력 10)		詔使	翰林院編修 黃洪憲	工科右給事 中 王敬民		皇嗣탄생
1587년(만력 15) 3월		陳謝使	襄三益			
1589년(만력 17)		聖節使	尹根壽			
1590년(만력 18)		聖節使			李筠光	
1591년(만력 19)		陳奏使				吳億齡
1592년(만력 20)		問安使	柳夢寅			壬辰倭亂
		明使	行人司 薛藩			
		運餉使				李準
		請兵陳奏使	鄭崑壽			

* 전거: 『명 신종실록』, 『조선 선조실록』

이상과 같이 명의 입장에서 조선은 안정적인 조명관계가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절사 중심의 사행이 왕래한 반면, 여진은 조선보다 횡수와 규모에 있어 많은 왕래를 가졌다. 즉, 임진전쟁 이전까지 요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명의 관심은 여진의 준동과 회유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명의 대여진정책에 대한 집중을 조선은 그대로 수용하여 두만강 유역의 변호에 대한 정도와 회유에 집중했다.⁴⁶⁾ 즉, 임진전쟁 발발 13년 전에 북방에서 군사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본격적으로 여진침입으로 조선이 군사적으로 긴장한 시점은 1583년(선조 16)이었다.

먼저 임진전쟁 발발 이전 조명관계에서 군사문제는 주로 조선과 명의 인접한 변경을 두고 발생한 갈등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압록강 하류의 경작문제였다.

46) 『鶴峯逸稿』 권3, 「北征日錄」 기묘년 12월 15일 병술.

1581년(선조 16, 만력 11)에 요동의 軍民 劉尙德 등이 압록강과 造山坪에 무단으로 들어와 경작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조선은 요동도사에 자문을 전달하여 금지시킬 것을 요구하자 요동도사에서 馬耳山 아래 첫번째 通溝에 비를 세워 금지했다.⁴⁷⁾

의주부에 소속된 조산평은 일찍부터 조선과 명 사이에 월경과 경작문제로 충돌되었던 공간이었다. 1540년(중종 35, 가정 19)에 요동인들이 의주의 造山坪과 設陷坪 등지에 함부로 들어와 경작하자 조선은 요동도사에 자문을 보내 정황을 통지하고, 요동의 都御史·都總兵官·太監 등 3堂에게 정문을 보내어 금지할 것을 요구하였다.⁴⁸⁾

이처럼 압록강을 경계로 월경과 경작문제는 수시로 발생했다. 이전에 黔同島와 威化島에 요동인이 들어와 경작하자 조선에게 이를 문제시하여 요동도사에 자문을 보내고, 요동의 행정, 군사, 형정을 관장하는 3당에게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명은 이에 호응하여 이곳에 표석을 설치하고 요동인이 함부로 넘지 못하도록 경계하기도 했다. 이에 중종은 대신들의 의견을 들어 요동에 이자하고 3당에 정문을 보내도록 했다.

당시 조선이 문제시하였던 점은 조산평과 설함평이 의주성 바로 근접한 곳이란 점이었다. 이에 禁防策의 일환으로 보다 강력하게 명에 항의하였던 것이다. 요동인 王中 등이 조산평에 들어와 경작하자 조선에서 항의하고, 요동도사는 湯站指揮로 하여금 왕중 등을 치죄하도록 했다. 왕중 등은 이후 10월에 다시 조산평에 들어와 경작했는데, 조선은 이에 거듭 요동도사에 자문을 보내 항의하고, 요동도사는 동일하게 왕중 등을 치죄했다.⁴⁹⁾

이처럼 조선은 압록강 하류의 요동인이 월경하여 경작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요동도사에 자문을 보내 항의하고, 두만강 유역의 여진족이 들어와 부락을 형성하면 군사활동을 전개하여 몰아내기도 했다. 조선의 무관이 여진족의 경계에 들어갔다가 죽음을 당하기도 했다.⁵⁰⁾ 압록강 하류의 경작문제는 조선과 명의 합동

47) 『선조수정실록』 권17, 선조 16년 4월 1일(임자).

48) 『중종실록』 권93, 중종 35년 4월 10일(신미).

49) 『歷代要覽』 嘉靖 19년.

군사작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薪島의 요동인 포획이었다.⁵¹⁾ 1528년(중종 23) 중국배가 표류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신도를 방문한 평안도 경차관 林峻이 요동인 40여 가구가 신도에 함부로 들어와 거주함을 보고하자, 조선은 경차관을 파견하여 쇠환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에 평안도관찰사 許磁이 龜城府使 柳尙齡의牒呈에 의거하여 신도에 들어와 거주하던 요동인을 귀환시킨 일을 보고했다. 신도에 요동인은 이후 지속적으로 무단 거주하여 조선에서 수시로 쇠환시켰다.

한편, 조선의 질박함과 달리 요동도사는 실제 신도를 비롯한 요동인의 월경과 경작문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였다. 일례로 1529년(중종 24, 가정 8) 정조사 朴光榮이 사행간 요동도사에 도착하여 신도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실제 요동의 정치, 행정, 군사를 담당한 삼대인은 신도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박광영이 신도에서 요동인을 쫓아낼 때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강제로 쇠환해도 좋다는 鈞旨를 요구하자, 요동 掌印태감은 황제에게 보고할 필요없이 국왕의 자문을 보내오면 회자하겠다고 답변했다.

즉, 요동도사와 삼대인은 조선과 요동 사이의 문제를 가정제에게 보고되는 것을 염려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박광영은 조선에 書狀으로 보고했다.⁵²⁾ 명대 지방관의 고과평정에 있어 明人이 조선의 영역으로 들어가 외교분쟁을 발생시킨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점은 치명적인 결격사유였다. 이에 요동도사를 비롯한 지방관은 조선의 문제제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이와 동시에 조선에서 예부를 통해 황제에게 보고되는 것을 무마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조선은 수시로 이러한 명대 행정체제의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경문제를 해결했다.

그 결과 1530년(중종 25, 가정 9) 조선군과 명군이 합동으로 신도에 잠입하여 무단

50) 『歷代要覽』 嘉靖 2년: 7년.

51) 『중종실록』 권62, 중종 23년 8월 24일(계해): 29일(무진); 권64, 11월 20일(무오); 권65, 24년 7월 11일(갑진).

52) 『중종실록』 권66, 중종 24년 12월 9일(신미).

으로 거주하던 60명, 가축, 재산을 노획하여 쇠환하였다.⁵³⁾ 문제는 요동의 湯站指揮 王瑀가 지휘하는 명군이 조선 영역으로 들어와야 하는 점이었다. 이에 조선은 명군이 의주를 통과하지 않고 요동에서 바로 신도로 잠입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탕참지휘 왕우, 의주목사 金瑠, 龍川郡守 許礪 등이 군사를 지휘하여 신도에 거주하던 요동인을 쇠환하고 신도에서 명군을 연향하여 보냈다.

이후 1531년(중종 26, 가정 10) 요동인이 위화도에 들어와 경작하자 조선에서 요동도사에 자문을 보내 쇠환을 요구하자 명군이 이들을 쇠환하고 조선에 결과를 통보했다. 위화도에 요동인이 들어와 경작하는 사례는 1533년, 요동인 董禮, 朴雄 등 5백여 명이 경작하다 조선의 요구로 요동도사에서 치죄하고 철거시키기도 했다. 1534년에는 위화도에 禁畝의 標石을 세우기도 했으며, 1535년에도 위화도에 경작하는 요동인을 요동도사 삼대인이 직접 답사하고 쇠환하기도 했다.⁵⁴⁾ 결론적으로 임진전쟁 이전 조명간에는 군사문제는 주로 압록강의 월경, 경작문제였으며, 이에 대해 조선은 적극적으로 금지를 요구했다. 이에 명 요동도사는 중앙에 보고되는 것을 경계하여 조선의 요구에 따라 월경과 경작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압록강 유역과 달리 두만강 유역의 여진문제는 조명관계의 범주가 아닌 조선과 여진간 갈등으로 한정되었다. 이는 국경을 넘어 주요 군진을 노략질한 세력이 조선의 변호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⁵⁵⁾ 선조대 여진관계는 여진에 의한 국경침입과 농경지 침범으로 정치, 군사, 외교적 당면과제였다. 수시로 잦은 충돌로 여진과의 관계는 선조 초반을 경과하면서 큰 충돌로 이어져, 그 절정은 1583년(선조16) 니탕개의 난이었다.⁵⁶⁾

53) 『중종실록』 권67, 중종 25년 3월 10일(경자); 『歷代要覽』 嘉靖 9년.

54) 『歷代要覽』 嘉靖 10년; 12년; 13년; 14년.

55) 정다함, 2008, 「朝鮮初期 野人과 對馬島에 대한 藩籬·藩屏認識의 형성과 敬差官의 파견」, 『동방학지』 141; 한성주, 2010, 「조선전기 두만강유역 '女眞 藩籬·藩胡'의 형성과 성격」, 『한국사학보』 41; 2014, 「조선 변경정책의 허와 실-두만강 유역 女眞 藩胡의 성장과 발전」, 『명청사연구』 42.

56) 송우혜, 2012, 「조선 선조조의 니탕개란 연구」, 『역사비평』, 2005; 윤호량, 「선조 16년(1583) '尼湯介의 亂'과 조선의 대응」, 『군사』 82; 한성주, 2018, 「임진왜란 전후 女眞 藩胡의 朝鮮 침구 양상과 조선의 대응 분석」, 『동양사학연구』 132, 2015; 『조선시대 변호 연구』, 경인문화사.

니탕개의 난 뿐만 아니라 조선은 요동과 일본의 정세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접수하고 파악했다. 조선이 여진의 침입 및 대응, 군적정비에 치중하던 중 1574년(선조 7) 11월에 몽골 20만 병력이 開原을 공격했지만, 명이 방어하였다는 정보를 인지했다.⁵⁷⁾ 조선은 북방의 정세변화뿐만 아니라 일본의 정세도 파악했다. 주로 대마도주가 왜구에 관련된 정보를 서계로 알려오면 이를 대비했다.⁵⁸⁾ 중국에 표류하였다가 조선으로 송환된 제주사람 梁俊 등 22명에게 베 1필씩 지급하여 위무했다. 조선인이 중국에 표류하면 각 지방에서 병부로 보고하면, 병부에서 예부로 移咨하고, 예부에서 요동에 이자하여 조선으로 송환했다.⁵⁹⁾

이와같이 조선은 만력연간 임진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 북방의 여진관련 군사대응에 명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명의 정세 속에서 정벌과 회유를 거듭했다. 특히, 여진의 내부갈등과 명의 통제 부재라는 정황에서 발생한 니탕개의 난은 명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조선의 양계지역에서 발생한 큰 전쟁으로 조선의 군사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조선은 임진전쟁 발발이전까지 북방의 군사정책에 집중했으며, 여진관련 명의 통제강화를 요구하는 군사외교정책을 전개했다.

한편, 만력 전반기 조명관계에서 또한 주목되는 점은 종계변무이다. 종계변무는 조선 건국이후 최대의 외교사건으로 선조대까지 해결되지 못한 난제였다. 이에 조선은 역대 수시로 종계변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펼쳤다. 방계출신 최초의 군주였던 선조는 정통성 문제와 왕권강화를 목적으로 외교활동을 전개하여 조선최대 외교난제를 해결한 군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자 했다.⁶⁰⁾ 이처럼 임진전쟁 이전까지 조명관계는 원만한 관계로 진행된 반면, 번호로 인식된 여진과의 군사충돌은 지속되었다.

57) 『선조실록』 권8, 선조 7년 11월 3일(계유).

58) 『선조실록』 권9, 선조 8년 3월 17일(병진).

59) 『선조실록』 권10, 선조 9년 6월 29일(경인).

60) 김경록, 2006, 「조선초기 종계변무의 전개양상과 대명관계」, 『국사관논총』 108: 2014, 「선조대 홍순언의 외교활동과 朝明관계」, 『명청사연구』 41, 10-21쪽.

IV. 명의 임진전쟁 참전결정과 지연

임진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조선은 표류한 중국인을 명에 돌려보내며, 일본의 정세를 보고하였다. 조선은 일본에 파견되었던 통신사행을 통해 파악된 일본의 전쟁 가능성과 군사상황을 명에 전달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했던 것이다. 조선사행이 보고한 내용은 예부에서 제본으로 만력제에게 보고되었으며, 만력제는 조선이 職貢을 성실히 수행하고, 표류민을 귀환시킨 점을 포상했다.⁶¹⁾ 즉, 임진전쟁 발발이전 조명관계는 원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자 명의 전쟁인식 및 전쟁대응은 현실 군사상황과 관련하여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먼저 전쟁관련 보고 및 명의 처리과정을 살펴본다. 조선은 1590년(선조 23)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여 일본정세를 파악하고자 했다. 11월 7일, 聚樂第에서 도요토미를 접견한 통신사행은 1591년(선조 24) 1월 28일, 부산포로 귀국하여 선조에게 보고했다. 한편, 뒤이어 현소일행이 조선을 방문하여 도요토미의 명 진출에 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조선은 일본의 정세가 위급하다는 내용으로 명에 전달하고자 했다. 1591년 5월에 일본에서 쇄환된 조선인의 정보라 핑계하여 성절사 金應南으로 하여금 명에 전달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 8월에 요동도사에서 일본의 정세에 대한 문의가 오자 조선은 예조판서 韓應寅을 파견하여 일본의 정세를 전달했다.⁶²⁾ 요동도사의 咨文은 유구 中山王府 長史 鄭廻의 보고에 도요토미의 유구압박, 명과 媾好 책동, 조선 경략, 일본에서 造船, 명을 침입할 계획, 관백의 天授 僭稱 등이 있으며, 복건 同安縣 상인 陳申의 보고에 일본이 유구의 進貢요구, 9월에 명을 침입할 계획, 조선의 嚮導 등이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내용이었다. 조선의 입장에서 일본과 연계된 내용이라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했다.

1592년 전쟁이 발발하자 조선은 5월에 역관을 파견하여 요동도사에 전달하자 5월 10일, 寬奠堡 副總兵 都指揮 修養正이 義州鎮절제사 黃璉에게 압록강 도강을

61) 『명신종실록』 권246, 만력 20년 3월 8일(무진).

62) 『再造藩邦志』 권1, 신묘년.

통보하였다. 황진은 이를 거절하였다.⁶³⁾ 전쟁발발을 알리는 선조의 자문은 요동을 통해 5월 10일에 만력제에게 보고되었다.⁶⁴⁾ 병부의 보고이후 병과급사중 吳鴻功, 山西道御史 彭好古, 병과급사중 劉道隆, 예과우급사중 張輔之, 直隸巡按御史 張應揚, 직예순안어사 劉士恕, 遼東巡按御史 李時孳 등의 방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상주가 만력제에게 올라왔다.⁶⁵⁾ 이에 만력제는 6월 2일, 요동의 병력 2개 부대를 조선에 파병하고 은 2만 냥을 하사하여 군사들을 위로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명군의 참전을 결정한 것이다.

한편, 군정권을 총괄하였던 병부상서 석성은 요동도사에 지시하여 조선과 일본의 연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에 요동鎮撫 林世祿, 崔世臣 등이 6월 5일에 평양의 일본군을 정탐한다는 핑계로 선조를 만났다.⁶⁶⁾ 이는 만력제의 참전결정 이전에 병부상서가 군사정보 수집차원에서 취한 조치였다. 만력제의 참전결정은 임세록을 통해 6월 13일 조선에 통보되었다.⁶⁷⁾ 그러나 실제 요동병력을 조발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명은 우선적으로 1,000명 수준의 병력을 조선에 파견했다. 요동의 유격 史游, 참장 郭夢徵이 1,000명의 병력을 지휘하여 선천의 林畔館에 도착하였다가 총병 조승훈의 부대를 기다리기 위해 의주에 주둔했다.

한편, 요동 순안어사 李時孳는 지휘 宋國臣을 조선에 보내어 군사정보를 전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일본군의 공세로 평양이 공격받자 요동 순무어사 郝杰은 선조의 入遼요구를 만력제에게 보고했다.⁶⁸⁾ 병부상서 석성은 선조가 압록강을 건

63) 『壬辰日錄』 권1, 5월 19일조.

64) 『명신종실록』 권248, 만력 20년 5월 10일(기사). 만력제는 병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즉시 요동과 산동을 비롯한 연해 省, 直隸의 도독, 진무, 총병 등으로 하여금 방비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65) 『經略復國要編』附, 部垣臺諫條議疏略(兵部一本; 兵科給事中吳鴻功奏稱; 山西道御史彭好古奏稱; 兵科給事中劉道隆奏稱; 禮科右給事中張輔之奏稱; 直隸巡按御史張應揚奏稱; 直隸巡按御史劉士恕奏稱; 遼東巡按御史李時孳奏稱).

66) 『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6월 5일(기사).

67) 『國朝寶鑑』 권31, 선조조 8, 선조 25년 6월.

68) 『全浙兵制考』 권2, 遼東總兵楊爲緊急倭報事. 구체적으로 선조의 입요에 대한 보고는 寬奠부총병 修養正이 夜不收 金子貴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分守遼海東寧道參議 荊州俊에게 보고하고, 이는 요동순무 郝杰을 거쳐 요동총병 楊紹勳에게 보고되었다. 이를 양소훈이 6월 17일자로 만력제에게 보고했다.

너면 전쟁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긴급하게 명군의 파병을 만력제에게 건의했다. 만력제는 요동의 일부 병력을 신속하게 파병하도록 지시했다. 석성은 명군 파병에 앞서 지휘 黃應暘을 조선에 파견하여 선조를 만나 일본의 서신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에 조선은 통신사가 가져온 서신을 보여주며 명의 의심을 해소할 수 있었다.⁶⁹⁾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만력제의 파견 지시는 내려졌으므로 병부와 좌군도독부는 요동도사 휘하 병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파병하고자 했다. 만력제의 선발대 파견지시 및 병부상서 석성의 조선에 대한 일본과 연대의심이 해소되자 명은 가용한 요동병력을 파병시켰다. 선발대는 廣寧總兵 楊紹勳을 主將으로 부총병 祖承訓을 副將으로 하는 廣寧과 요동의 衛所 병력이었다. 선발대는 6월 15일~19일에 의주에 도착했다. 조승훈은 봉황성에서 양소훈의 병력을 기다렸으며, 군량조달 문제가 발생하자 더욱 지체되었다. 이들 선발대는 일본군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행군 중에 비가 오자 조승훈은 점을 보아 길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평양으로 이동하였다.⁷⁰⁾

선발대의 평양성전투는 무모한 전투로 유격 사유, 천총 馬世隆이 전사하고 조승훈은 부상을 당했다. 군마 1,000필, 전사자 300명의 참담한 손실을 본 선발대는 요동으로 철수했다.⁷¹⁾ 선발대의 패전은 천하를 주재하는 만력제의 권위와 명군의 위상이 손상된 것이었다.

무엇보다 天命을 받든 황제 만력제가 국제질서의 안녕을 위협하는 일본의 도전을 용납할 수 없어 征討의 군대를 파견했는데 패배한 것이었다. 황제국의 위엄을 과시하며 조선으로 전쟁터를 제한하고자 하였던 의도와 달리 명군의 패배가 발생했다.⁷²⁾ 안정적으로 국제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명의 입장에서 “奉天承運” 하는 황제 만력제의 위상을 보다 강력하게 과시해야 할 과제가 발생한 것이다.

69) 『국조보감』 권31, 선조 8, 선조 25년 6월.

70) 김경록, 2022, 『조선중기 한중군사관계사』 하권, 군사편찬연구소, 487-489쪽.

71) 『선조실록』 권33, 선조 25년 12월 23일(기유).

72) 余繼登『淡然軒集』 권7, 「朝鮮撤兵議」. 명은 기본적으로 임진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심각하게 논의하고, 전쟁을 조선으로 한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보여주는 명 조정의 여러 주장이 존재했다.

이에 병부는 선발대의 패배를 불순한 조선인이 평양성에 존재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정토군의 신속한 파병을 건의하자 만력제는 聖旨를 내려 승인했다.⁷³⁾ 이후 명군의 참전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조선의 연이은 명군 참전요구에 응하는 모양새를 갖추어 정토군 파병을 최종 결정하고, 行人 薛藩을 파견하여 조선에 참전칙서를 전달했다.⁷⁴⁾

명의 지역별 군사지휘관계를 살펴보면, 1585년(만력 13) 12월을 기준으로 임진전쟁과 관련하여 조선에 파견된 명군을 지휘한 장수는 대동총병 마귀와 창진총병 동일원이었다. 물론 뒤에 해임된 이성량을 대신하여 요동총병으로 승진한 이여송이 함께 참전하였다.⁷⁵⁾

명의 정세 및 군사상황과 함께 명의 동원체제 및 정토군 구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명은 건국이후 군령권과 군정권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황제 중심으로 일원적인 군사지휘체계가 운영되도록 했다.⁷⁶⁾ 전국을 위소체제로 구성하고, 도지휘사사를 정점으로 하여 군적에 오른 병력을 운용하였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진 군사지휘권은 방어를 위한 통제범위 내의 지휘였다. 정토군과 같은 대규모 병력 동원을 위해서는 황제에 의해 중앙에서 총병관으로 임명된 무관이 經略과 같은 문관의 통제를 받아 각지에서 조발된 병력을 집결시켜 군사작전을 수행했다. 각지의 병력을 조발하는 것도 많은 시일과 비용이 소요된다.

임진전쟁 이전 만력연간 명은 외부의 침입, 내부의 반란으로 군사충돌이 빈발했다. 이들 전쟁과 토벌의 군사충돌은 많은 병력의 동원, 지원체계의 고갈, 군사지휘관과 중앙 정치권과의 밀착관계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 일례로 만력 즉위년에 발생하여 원년에 진압된 매우 작은 규모의 반란을 살펴본다.

1573년(만력 원년) 2월, 廣西巡撫 郭應聘이 만력제에게 府江 瑤족의 봉기를 진압한 정황과 포상을 건의했다.⁷⁷⁾ 부강의 요족이 봉기를 일으킨 시점은 1572년 가을

73) 김경록, 2022, 「임진전쟁기 명의 참전과 전쟁전략」, 『지역과 역사』 50, 16-17쪽.

74) 『명신종실록』 권250, 만력 20년 7월 26일(계미); 권251, 8월 5일(임진).

75) 『명신종실록』 권169, 만력 13년 12월 18일(갑신). 명대 무관을 포함한 관원의 고과평가를 하였는데, 이때 각 변진의 총병은 모두 유임되었다.

76) 김경록, 2022, 『조선중기 한중군사관계사』, 군사편찬연구소, 59-75쪽.

이었으며, 노략질이 확대되자 兵備副使 劉穩이 대규모 토벌군을 요청했다. 명 조정은 광서 각 州司의 土官兵으로 4大哨를 구성하고, 參將 王世科가 三峒哨를, 副使 金柱가 감독하고, 參將 錢鳳翔가 東岸哨를, 僉事 夏道南이 감독하고, 都司 董龍과 王承恩이 西岸哨와 水哨를, 부사 鄭茂가 감독하며, 總兵官 李錫이 전체 토벌군을 통솔하도록 했다. 토벌군의 군량 및 지원임무는 參政 胡直이 담당하고, 부사 劉廷舉가 감군역할을 담당했다. 토벌군은 1572년 10월부터 3개월간 토벌작전을 펼쳐 요새 10곳, 반란의 우두머리 楊錢甫 등 10명과 휘하 4,667명을 베고, 440명을 포로로 사로잡는 전공을 세웠다. 이런 지역단위 반란은 조직적인 무장세력화가 미흡하여 명군의 토벌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약 5,000여 명의 반란도 토벌군 구성 및 작전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많은 지역의 병력이 동원되었다.

특히, 임진전쟁이 발발하기 2개월 전에 대규모 귀순한 세력과 몽골군이 연합하여 일으킨 영하반란은 명의 입장에서 최대의 위기였다. 이에 전국의 모든 병력을 집중하여 이를 진압해야 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진침입을 방어하기에 부족한 요동병력을 대규모로 조발할 정도였다.

또한, 명의 대외 참전을 위해 정토군을 구성할 때, 난제는 군사지휘부의 구성이었다. 경략, 총병관을 누구로 하느냐는 민감한 정치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명은 이미 임진전쟁 발발 이전인 1591년(만력 19) 11월에 일본 관백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음 해 3월에 침입할 것이라 호언하였음에 주목하여 병부로 하여금 해안의 방비를 강화하도록 했다.⁷⁷⁾ 일정하게 임진전쟁 발발을 예상하고 일정한 방비를 진행하였던 명은 전쟁초기 조선의 일방적인 패전으로 일본군의 명 본토 침략 가능성이 높아지자 참전을 결정한 것이다.

당시 명의 서북쪽 전쟁수행 및 막대한 건물건축으로 인한 국가 재정 및 군사적 역량의 제한이 있어 이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절차들이 수행되었다. 그 핵심은 조선파병의 결정 및 파병 명군을 총지휘할 경략의 임명이었다. 최종적으

77) 『명신종실록』 권10, 만력 원년 2월 23일(갑술).

78) 『명사』 권320, 列傳208, 外國1, 朝鮮.

로 산동에서 일본의 방어를 주장하였던 송응창을 경략으로 임명하게 되었다.⁷⁹⁾ 1592년(만력 20) 1월, 산동순무 송응창은 일본의 정세가 현저하게 불안하므로 방어를 위해 정병을 선발하여 훈련을 시키는 대책을 건의했다. 송응창의 건의는 만력제에 의해 윤택되어 세부적인 내용을 병부에서 覆奏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송응창이 8월 18일에 최종 경략으로 임명되었다.⁸⁰⁾ 이때부터 송응창은 경략으로서 군사임무를 수행하여 병력조달을 어떻게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수행할 幕下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병부를 거쳐 만력제의 재가를 받아야 했다.

경략에 임명된 뒤 송응창은 먼저 요서지방과 天津이 모두 京師를 방어하는 요해처이지만, 오랜 기간동안 軍務가 해이해져 있음을 지적하고, 자신이 경략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칙서를 내려줄 것, 전쟁비용, 무기와 포 등을 제조하여 조달해 줄 것, 막하로 병부주사 袁黃, 劉黃裳 등을 贊畫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만력제는 경략은 그 임무가 막중하고 송응창이 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권장한 뒤 일체의 군사지휘관에 대한 지휘권을 하사하였으며, 비용으로 20만 량을 하사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송응창의 경략임명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월 초에 자신의 경략임명에 대한 반대의견을 접한 송응창은 사직을 청했지만, 만력제는 윤택하지 않았다. 당시 송응창의 경략임명에 대한 반대는 御史 郭實이 주장한 바였지만, 만력제의 강력한 의지로 무마되었다.⁸¹⁾ 御使 郭實은 송응창의 경략임명에 대한 반대뿐만 아니라 임진전쟁 중 명의 일본 入貢방안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다가 1594년 9월에 파직되었던 인물이었다.⁸²⁾ 그러나 문제는 경략 임명 이후 9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반대의견과 이에 따른 사직, 사직의 不允 등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이다.⁸³⁾

만력제의 강력한 신임을 바탕으로 송응창은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파병 명군

79) 『명신종실록』 권212, 만력 17년 6월 10일(을유).

80) 『명신종실록』 권244, 만력 20년 정월 30일(신묘); 권251, 8월 18일(을사).

81) 『명신종실록』 권251, 만력 20년 8월 25일(임자); 권252, 9월 9일(을축); 15일(신미).

82) 『明史』 권320, 列傳208, 外國1, 朝鮮.

83) 『경략복국요편』 권1, 初奉經略請勅疏.

의 구성 및 파병절차에 들어갔다. 송응창은 9월 20일에 병부에서 올린 제분을 통해 경략으로서 계주, 요동 등지의 督撫와 會同하여 새로 관할지역을 획정하고, 정예 병력을 선발하고, 마차, 포, 선박 등을 준비하고자 하니, 보정, 계주, 요동, 산동의 독무에게 칙서를 내려 일본군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자신에게 통제를 받도록 요구했다.⁸⁴⁾

1592년 10월에 접어들자 병부상서 석성이 만력제에게 제분을 올려 자신이 직접 임진전쟁에 참전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건의하자 만력제는 병부상서로서 중앙에서 군사관련 업무를 조율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⁸⁵⁾ 석성이 직접 참전 의사를 밝힌 점은 일본군의 진격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어 압록강까지 진출하여 명 침략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당시 명 지도층의 위기의식을 보여준다.

명군의 참전에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군량의 조달이었다. 군대의 전쟁수행에 있어 군량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고대부터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었다. 일반적으로 군량이라면 비단 군사들이 먹는 곡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芻糧이라 하여 馬草와 糧穀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기도 한다. 이는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의 하나였던 군마를 먹이기 위한 풀과 군사를 먹일 군량을 의미한다.

군량의 조달은 기존에 비축된 군량에 부족한 분량을 민으로부터 징집하는 것으로 민의 고충이 많았던 사항이다. 또한, 비록 비축되거나 징발된 군량을 전쟁터로 운송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군량이 비축된 곳이 중앙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분산된 창고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전쟁터까지 운송하기 위해서는 海運과 陸運의 방법이 있었다. 해운은 선박을 준비해야 하며 전쟁터가 해운에 연결되어야 가능했다. 반면에 육운은 다양한 지역으로 운송이 가능하지만, 소와 말을 이용해야 하는데 문제는 우마의 준비 및 장거리 운송이 어렵고, 마리당 소량의 운송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전근대 전쟁에서 군량조달은 가장 어렵고 많은 준비가 필요했다. 임진전쟁에서 명군의 참전 역시 마찬가지였다.⁸⁶⁾

84) 『명신종실록』 권252, 만력 20년 9월 20일(병자).

85) 『명신종실록』 권253, 만력 20년 10월 5일(신묘).

명대 대단위 병력을 동원한 전쟁수행은 지역단위 병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전국적으로 병력동원을 시행했다. 이는 임진전쟁에 출병하기 위해 경략 송응창이 병력동원을 지시한 군진을 살펴보면, 1592년(만력 20) 10월 21일자로 順天, 保定, 宣府, 大同, 遼東 등지의 巡撫衙門, 薊遼總督軍門 등이다. 송응창은 경략 명의의 자문을 이들 군진에 보내 조발할 병력규모, 이들 병력에게 지급할 安家銀 등을 지정하고, 지정된 일자까지 요동에 집결하여 의주를 통해 조선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다. 예를 들면, 송응창은 병부 職方清吏司가 만력제에게 올린 案모을 근거로 각 순무에게 병력조발을 지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薊州鎮 南兵 5,000명, 山海關 火器手 3,000명, 谷燧 및 駱尙志 부대 1,600명, 遼東鎮 7,000명, 家丁 3,000명, 薊州鎮 北兵 5,000명, 保定鎮 5,000명, 宣府 및 大同 8,000명 등이며, 모두 마병과 보병을 각각 절반씩 구성하고, 副總兵 혹은 參將 1명과 遊擊 1명이 통솔하도록 했다. 각 병사에게는 安家銀 5냥을 모두 미리 지급하여 정해진 기한에 요동에 집결하고, 의주를 거쳐 조선에 진입하도록 했다.⁸⁷⁾

송응창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에 파견된 명군은 1592년 12월 12일 기점으로 31,897명이었다.⁸⁸⁾ 후속 도착할 10,000명의 병력까지 포함하면 4만 명의 병력이었다. 이외에 延綏入衛家丁 3,000명, 薊鎮兵 2,900명, 山西兵 2,000명, 四川參將 劉綎 四川兵 2,000명, 播州宣慰司 楊應龍 家丁 5,000명 등은 후속부대로 조선으로 이동했다. 이들 병력이 늦은 것은 해당 군진이 조선과 거리가 먼 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병력 구성이 늦은 이유 때문이었다. 한편, 임진전쟁에 파병된 명군에 초기에는 포함되었다가 중간에 조발이 취소된 병력 가운데 먼 이동거리 및 요동에 집결한 병력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播州宣慰司 楊應龍의 부대는 조발이 취소되었다.⁸⁹⁾

이상과 같이 명의 군사체제에서 요동은 군기문란과 다양한 군사충돌로 군사

86) 김경록, 2022, 「임진전쟁기 조선과 명의 전쟁인식과 군수정책」, 『중국사연구』 139, 105-134쪽.

87) 『경략복국요편』 권2, 移順天撫院咨, 移薊遼總督軍門咨, 移保定撫院咨, 移文宣撫大同二撫院咨, 移遼東撫院咨; 移薊遼總督軍門咨(萬曆 20년 10월 21일).

88) 『경략복국요편』 권4, 報進兵日期疏.

89) 『명신증실록』 권255, 만력 20년 12월 15일(신축).

적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특히, 만력연간에 이성량이 군사지휘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요동의 많은 병력손실이 발생했다. 임진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요동의 군사지휘권은 이성량에게 있었지만, 허위보고 및 부정부패로 탄핵되어 영하의 반란에 이어송이 군사력을 지휘하여 참전하였다. 요동병력의 영하이동 및 전쟁수행은 임진전쟁 발발이후 8개월 후 명군이 참전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명중후기 이후 지속된 내외 군사충돌로 인한 병력동원, 군수지원, 지휘체계 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만력제의 참전결정에도 불구하고, 6개월 후에 명군이 참전한 것은 요동병력의 영하반란 진압투입 및 반란 진압이후 조선으로 이동, 전국적인 병력조발로 인한 혼란, 일본군을 대상으로 한 전쟁에 필요한 군수지원의 지연, 참전과 불참의 정치적 의견충돌, 적합한 지휘관 선정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된 결과였다.

V. 맺음말

임진전쟁은 16세기 최대 국제전쟁으로 조선은 물론이고, 명청교체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일본의 막부체제 전환을 가져왔다. 이런 점에서 임진전쟁의 분석에 국제정세와 조선과 명의 군사관계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명은 만력연간에 접어들며, 장거정의 개혁정치와 만력제의 황태자책봉갈등 등으로 효율적인 정국운영이 되지 못했다. 내부적으로 수모 장거정의 정치는 어느 정도 명의 재정을 회복시키고, 몽골과의 갈등을 완화했지만, 여진족의 요동침입에 대해 군사력을 집중하지 못했다. 이는 만력삼대정의 군사적 수요도 있었지만, 만력제의 대여진정책이 회유와 견제를 통한 통제였기 때문이었다. 황태자책봉갈등은 만력제의 태정으로 이어져 명의 정치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전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조선은 최초의 방계군주 선조의 즉위와 왕권에 대한 권위를 정립하기 위한 정치여정이 이어졌다. 조선은 압록강 하류에 월경과 경작문제로 요동도사와 밀접하

계 관련성을 가졌으며, 종계변무를 원활히 해결하는 등 임진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 조명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했다. 반면, 명은 만력 전반기 지속적으로 여진의 침입으로 군사충돌이 빈번하였다. 여진이 점차 부족연합의 성격으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면서 요동은 비록 침입을 격퇴하더라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요동 총병관으로 여진의 침입을 격퇴한 이성량은 명군의 본질적인 개혁과 재정비는 논의로 하고, 자신의 권력 강화 및 치부에 전념했다.

명은 군사지휘관에 대한 군벌화 방지를 제도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량은 20년이 넘도록 요동의 군사지배자로 존재했다. 이는 명의 군사지휘체계 및 통제가 혼란스러웠음을 의미한다. 이성량의 폐단을 탄핵한 시점이 1591년으로 임진전쟁 발발 1년 전이었다. 이는 요동의 군사력이 중심점을 잃고 분산적으로 여진의 침입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또한, 임진전쟁 발발 직전에 영하에서 반란이 일어나 요동병력이 진압군으로 투입된 점도 임진전쟁에 신속한 명군 참전이 어렵게 만든 결과를 가져왔다.

명은 황제국으로 국제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침략국 일본에 대한 정도가 필요했다. 그러나 가용한 병력의 제한 등으로 만력제의 참전결정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참전이 힘들었다. 요동병력을 주축으로 한 선발대의 평양성전투 패배는 명과 만력제의 권위에 손상을 가져왔다. 이후 명은 송응창을 경략으로 임명하고, 병력조발 및 지휘부를 구성하며 군량과 군기의 조달에 주력했다. 8월 말 경략 임명 및 9월부터 정도군을 구성하여 최종적으로 영하의 반란을 진압한 병력을 투입하여 12월말 조선에 진주하였다.

또한, 명의 군사지휘체계에서 대규모 정도군을 구성할 때, 군정권과 군령권을 분리하여 황제 중심의 일원적인 지휘를 지향하였던 점이 영향을 주었다.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총병관은 문관 경략의 통제를 받아 각지에서 조발되는 병력을 기함에 맞춰 집결시키고, 이를 작전지역으로 이동시켜야 했다. 이들에 대한 군기지원, 군량조달, 필요시 동원체계에 따른 병력증원 등은 더욱 정도군 구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했다.

본 글은 임진전쟁 참전결정 및 그 과정과 군역체계, 군량조달, 지휘체계 및 군

사갈등에 대한 내용은 논외로 하였다. 이는 향후 보다 치밀한 연구를 통해 정리되어야 할 것이며, 일본이 파악한 요동 및 명군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다면 임진왜란 발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성과가 도출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사료

『朝鮮王朝實錄』, 『經國大典』, 『經國大典註解』, 『大典會通』, 『宣廟中興志』, 『再造藩邦志』, 『迎接都監都廳儀軌』(奎 14545), 『壬辰記錄』, 『연려실기술』, 『大東野乘』, 『亂中雜錄』
『洪武御製全書』, 『皇明文徵』, 『명태조실록』, 『명태종실록』, 『명무종실록』, 『명효종실록』,
『명영종실록』, 『명목종실록』, 『명신종실록』, 『萬曆會典』, 『明會要』, 『明史』, 『明史紀事本末』, 『萬曆邸鈔』, 『國朝典彙』, 『禮部志稿』, 『國權』, 『湧幢小品』, 『弇山堂別集』, 『殊域周咨錄』,
『武備志』, 『經略復國要編』

2. 연구서

계승변, 2011,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 푸른역사
김정록, 2022, 『조선중기 한중군사관계사』(상·하), 군사편찬연구소
김문자, 2021, 『임진전쟁과 도요토미 정권』, 경인문화사
민덕기 편저, 2007, 『전근대 동아시아 세계의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오금성, 2018, 『장거정 시대를 구하다』, 지식산업사
이삼성, 2009,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1, 한길사
曹永祿, 1988, 『中國近世政治史研究』, 지식산업사
한명기, 1999,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한성주, 2018, 『조선시대 藩胡연구』, 경인문화사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2005,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한일관계사연구회논집 편찬위원회 편, 2010, 『동아시아 세계와 임진왜란』, 경인문화사
한일문화교류기금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0, 『임진왜란과 동아시아세계의 변동』, 경인문화사
臺灣三軍大學編, 2013, 『中國歷代戰爭史14冊-明』 中信出版社
趙現海, 2012, 『明代九邊長城軍鎮史』, 社會科學文獻出版社
周良霄, 1997, 『皇帝與皇權』, 上海古籍出版社
周一良, 1962, 『明代援朝抗倭戰爭』, 中華書局
중국군사과학원, 1998, 『中國軍事通史』15(明代軍事史), 軍事科學出版社
鄭樸生, 1984, 『明·日關係史の研究』, 雄山閣
루이스 프로이스 저, 정성화·양윤선 역, 2008, 『임진난의 기록』, 살림

3. 연구논문

- 김강식, 2011, 「임진왜란시기 萊庵 鄭仁弘의 의병운동」, 『역사와 경계』 81
 _____, 2016, 「임진왜란을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시각」, 『지역과 역사』
- 김경록, 2006, 「동양의 전략 개념에 대한 시론」, 『군사』 61
 _____, 2019, 「명 홍무연간 요동인식과 군정체제」, 『명청사연구』 51
 _____, 2014, 「선조대 홍순언의 외교활동과 조명관계」, 『명청사연구』 41
 _____, 2021, 「임진전쟁 초기 선조의 전쟁인식과 파천논쟁」, 『민족문화연구』 92
 _____, 2022, 「임진전쟁기 조선과 명의 전쟁인식과 군수정책」, 『중국사연구』 139
 _____, 2017, 「정유재란기 파병 명군의 구성과 조명연합군」, 『한일관계사연구』 57
 _____, 2006, 「조선초기 종계변무의 전개양상과 대명관계」, 『국사관논총』 108
 _____, 2012, 「홍무제의 대외인식과 조공제도의 정비」, 『명청사연구』 37
- 김경태, 2007, 「임진왜란 직후, 대일강화정책의 성격연구」, 『한국사연구』 138
 _____, 2014, 「임진전쟁 초기의 군량문제와 강화교섭 논의」, 『歷史와 談論』 70
- 김한식, 1994, 「明代 援朝抗倭의 실상 및 그 역사계기성」, 『황종동 교수 정년 기념논총』
- 민덕기, 2010, 「임진왜란 직전 조선의 국방 인식과 대응에 대한 재검토」, 『역사와 담론』 57
- 박정민, 2014, 「누르하치의 두만강 유역 진출과 조선의 藩胡 상실」, 『인문과학연구』 43
- 손종성, 1990, 「임진왜란시대 명 외교-청병외교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14
- 윤호량, 2009, 「宣祖 16년(1583) '尼蕩介의 亂'과 조선의 군사전략」,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장희, 1996, 「임진왜란중 屯田經營에 대하여」, 『동양학』 26
- 장정수, 2013, 「선조대 對女眞 방어전략의 변화 과정과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67
- 장학근, 1993, 「임난초기 명군내원과 군량논의」, 『임난수군활동연구논총』
- 조원래, 1992, 「명군의 출병과 壬亂戰局의 추이」, 『한국사론』 22
- 차문섭, 1984, 「조선전기의 국방체제」, 『동양학』 14
- 최소자, 1977, 「임진난시 명의 파병에 대한 논고」, 『동양사학연구』 11
- 최효식, 1999, 「명의 임진왜란 참여 동기와 그 실제」, 『백산학보』 53
- 하우봉, 2011, 「동아시아 국제전쟁으로서의 임진전쟁」, 『한일관계사연구』 39
- 한명기, 2012, 「임진왜란 직전 동아시아 정세」, 『한일관계사연구』 43
- 허남린, 2012, 「명분과 실리의 정치역학: 임진왜란 시기의 강화논의를 둘러싼 유성룡의 역할과 정쟁」, 『안동학』 11
- 姜守鵬, 1990.3, 「明代遼東經濟」, 『社會科學輯刊』
- 高灵灵·尚文举, 2012, 「李成梁移建寬奠六堡台议」, 『南方职业教育學刊』 2-5
- 董興華, 2013.9, 「從“壬辰倭乱”看明代山東的戰略地位」, 『科教導刊(中旬刊)』
- 刘旭東, 2013, 「李化龙與平播战争」, 『乐山师范学院學報』 28-4

- 李渡, 2010, 「明代監軍制度述論」, 『文史哲』 317期
- 修文强, 2014.6, 「李成梁軍事戰略思想探軼」, 『吉林省教育學院學報』
- 楊昭全, 1988, 「論明代援朝禦倭戰爭的幾個問題」, 『中朝關系史論文集』
- 柳斌, 2003.7, 「明萬曆援朝抗倭與韓國之浙籍華人」, 『浙江檔案』
- 劉永連·楊兆貴·趙殷尙, 2016, 「壬辰倭亂時期援朝明軍兵力考」, 『中國學報』 76
- 李雲泉, 2003, 「明清朝貢制度研究」, 暨南大學 博士學位論文
- 張貴淮·雷昌蛟, 2001.2, 「播州楊氏興亡與平播之役」, 『貴州文史從刊』
- 張士尊, 1996.2, 「明末遼東軍食問題述論」, 『山東師大學報(社會科學版)』
- 鄭微, 2012.1, 「論清入關前盟誓根源」, 『邊疆經濟與文化』 97期
- 朱皓軒, 2016, 「陳璘與平播之役」, 『陝西學前師範學院學報』 32-12
- 陳季君·陳旭, 2014, 「論明代播州楊氏土司的歷史終結」, 『雲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46-5
- 陳對, 2009, 『明代平播戰爭研究』, 西南大學碩士學位論文
- 陳尚勝, 2012.4, 「壬辰御倭戰爭初期糧草問題初探」, 『社會科學輯刊』
- 肖瑤, 2006, 「李成梁與晚明遼東政局研究」, 東北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 黃萬機, 2002.6, 「郭子章與平播戰役」, 『貴州社會科學』
- 岡野昌子, 1996, 「萬曆二十年寧夏兵變」, 『明末清初の社會と文化』, 京都大人文學研究所
- 佐久間重男, 1953, 「明朝의 海禁政策」, 『東方學』6輯, 東方學會

4. 기타 자료

2006, 『明代蒙古漢籍史料匯編』1執, 內蒙古大學出版社

투고일: 2023년 03월 22일 심사완료일: 2023년 04월 10일 게재확정일: 2023년 04월 18일

■ Abstract ■

The Imjin War(壬辰戰爭) and Ming's Military Participation
: A Historical Analysis of the Reign of Emperor Wanli(萬曆帝) and the
Military Situation in Ming

Kim, Kyeong-lok (Military History Institute)

This paper analyzes events that occurred during the Ming dynasty in the first half of the reign of Wanli with a focus on its participation in the Imjin War, an international conflict that transformed the East Asian order in the late 16th century. Despite extensive research on the Imjin War, there has been little attention given to the conflicts between the Joseon and Ming dynastie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Ming's situation before the Imjin War and the military situation of Liaodong, an adjacent area and supply base for the Ming's participation in the war.

The paper notes that while Jang Ge-jeong's(張居正) reform politics helped secure national finances and promote institutional changes, Emperor Wanli's direct rule disrupted the ruling order and led to external invasions and internal rebellions. Moreover, Liaodong faced military challenges due to the disorderly military command system and frequent invasions by Mongols and Jurchens.

Before the outbreak of the Imjin War, the mobilized military power in response to Jurchen intentions. However, due to the turmoil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y delayed participation in the Imjin War until December 1592. The paper sheds light on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Ming's situation before and during the Imjin War to exact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East Asian order in the 16th century.

Key words: Emperor Wanli period(萬曆年間), Situation of the Liaodong, Jang Ge-jeong(張居正), Imjin War(壬辰戰爭), Relationship between Joseon-Ming(朝明關係)